

2016년 산불조심기간 대비 및 산불발생빈도 저감방안 제시

표정기

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연구원, pyojk@cni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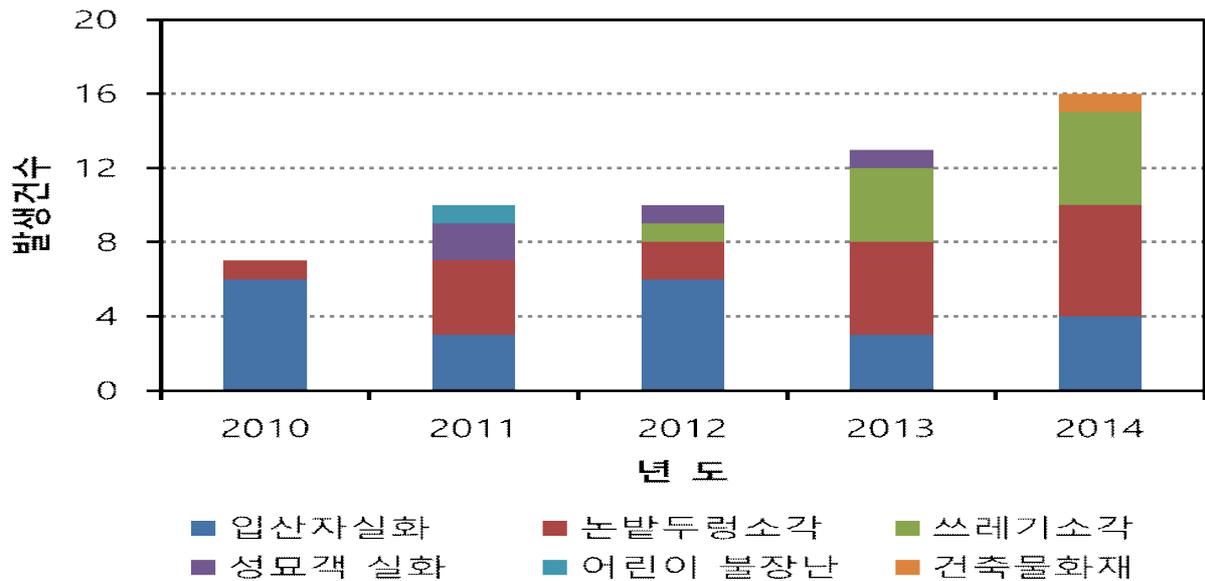
- ◇ 2015년 충남권역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산불조심기간(2월 1일부터 5월 15일) 및 초여름 동안의 충청남도 산불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규모는 중·대형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- ◇ 道 주요 산림에 대한 산불 감시체계 강화 및 선행 연구적용을 통한 예측체계 구축, 산불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등의 피해저감 정책이 필요

□ 산불피해 현황

- 2015년 전국 산불발생 건수는 623건으로 10년 평균(384건) 대비 62% 증가한 수치임. 반면, 피해면적은 34%감소한 것으로 보고됨.
- 시기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363건이 발생하여 10년 평균(264건) 대비 37%증가한 수치임. 특히 3월중 산불은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냄.
- 지역별 경기, 강원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타지역은 소폭 증감함. 충남은 2015년 23건으로 17개 시·도중 6번째임.
- ※ 경기(150건, 94ha), 강원(125건, 237ha), 충남(23건, 3.52ha)
- 2015년 충남의 산불발생건수는 23건으로 10년 평균('05~'14) 16.5건에 비해 약 70%증가한 수치임.

○ 충남 산불의 발생요인으로 소각에 의한 발생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.

〈충남 산불 발생원인 구성〉



○ 이에 대한 원인으로 첫 번째로 이전에는 소각산불과 입산자실화의 구분 및 보고가 불분명하였으나 최근 그 비율이 줄었으며, 두 번째로 농촌 인구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행위에 대한 산불 방어 능력이 떨어졌음. 또한, 귀농인구의 증가로 인한 산불 경각심 부족이 충남 산불과 소각산불의 증가 원인으로 판단됨.

□ 기후변화와 산불

○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수의 집중도가 증가하여 봄철 건조일수가 증가하고 이것은 봄철 기간 외 초여름(5월~6월)의 산불발생 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침.

○ 이러한 원인으로 2015년 초여름 산불 발생이 예년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겨울철 가뭄과 차년도 산불 발생의 상관에 대한 보고가 다수 발표되었음.

○ 기후변화와 산불발생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나 상관성에 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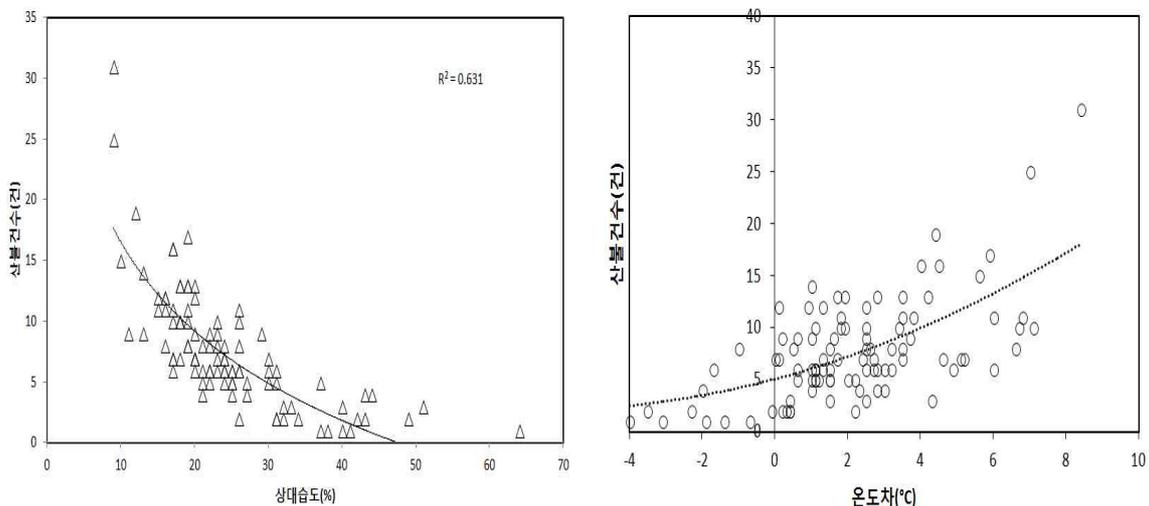
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, 산불발생 건수의 주요한 증가원인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내 연료조건이 이전에 비해 유리한 상황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됨.

- 특히, 고려할 사항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발생 빈도와 규모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비정형화되는데 있음.

□ 2016년 충남 산불발생 저감을 위한 고려사항

- 충남은 2015년 겨울철 극심한 가뭄으로 초여름 산불발생에 관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.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- 최근 산불과 기상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산불발생과 온도에 대한 상관은 없었으나 당일 온도와 평년(과거 30년)온도 차이, 최소상대습도는 산불발생과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음.
- ※ 충남도에서도 기상과 산불발생에 관한 자체 연구가 필요함.
- 그러므로, 선행 연구를 참고한 지자체 차원의 산불방지 예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〈상대습도, 온도차(당일-평년)와 산불발생건수 관계〉



(출처: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대응방안(산림청, 2014))

- 최근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기인하는 산불이 2월부터 3월초까지 다수 발생하였음.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.
- 아울러, 산불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참고하여 각 부처(충청남도-산림청-기상청-농촌진흥청)간 업무공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